



## 용 담

청자색 종모양으로 피어나는  
지리산 자생 내한성 속근초

정 연 권 구례군농촌지도소

용담(*Gentian scabra buergeri* MAX)은 용담과에 속하는 내한성 속근초로 초용담(草龍膽)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리산에 자생하는 것은 큰용담(*G. axillariflora* var. *coreana*)으로 단풍이 들기 시작할 무렵인 10월초에 청자색으로 피어나 가을의 정취를 한껏 머금은 “애수의 꽃”이다.

절화, 분화, 화단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뿌리는 한약재로 사용된다. 또한 꽃필때는 밀원식물로 가

치가 커서 개발, 확대재배하여야 할 자생화초이다. 더욱이 “우리것 찾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꽃으로 민족 자존심으로 되찾고 긍지감을 고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용담의 특성 및 성분

용담꽃은 길이 4.5~6cm, 지름 2.5cm의 종(鍾)모양의 청자색 통꽃인데 낮에는 꽃잎이 피어나고



밤에는 오므라드는 신비함을 갖고 있다.

잎은 마디마다 2매가 마주보며 나오고 잎자루는 없다. 세개의 평행된 잎맥이 있으며 줄기는 곧게 서서 100cm 안팎으로 자라는데 가지는 치지 않는다.

뿌리는 황백색의 굵은 수염뿌리로 되어 있고 고미배당체인 겐티오피크린(Gentiopicrin)과 삼당체인 겐티아노즈(Gentianose)를 함유하고 있어 건위, 이담, 소염등에 쓰인다. 뿌리가 담즙과 같이 쓰고 용은 최상급을 나타낸데서 생약명

표1. 주요 자생용담과 특성

종 류	꽃 색	개 화 기	초 장	용 도
용 담	청 자 색	8~10월	30~ 60cm	화단 분화 절화
큰 용 담	〃	8~ 9월	50~100cm	〃
과 남 풀	하 늘 색	7~ 8월	30~ 80cm	〃
북 과 남 풀	청 자 색	7~10월	30~ 60cm	절화의 대표품종
구 슬 봉 이	담 청 자 색	5~ 6월	2~ 10cm	분화 화단
큰 구슬봉이	청 자 색	5~ 6월	5~ 10cm	〃
봄 구슬봉이	청·백·분홍	4~ 5월	5~ 15cm	〃

으로 용담(龍膽)이라 부르고 있다. 용담뿌리는 국내 한약방에 년 1,000 M/T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입은 10M/T로 한정되어 생약으로도 전망이 무척 밝다.

### 생리상태 및 주요품종

저온성 화훼로 5℃에서 생육이 시작된다. 생육적온은 15℃이며 30℃이상에서는 잎끝이 타고 생육이 부진하다. 화아분화는 12~17℃(5월중하순)이며 뿌리는 -30℃에서 동사하는 내한성 속근초로 주요 자생품종은 표1과 같다.

### 절화재배방법

재배적지 표고 300~400m의 준고냉지가 유리하다. 배수양호하며 통기성이 좋은 토양이 좋다.

그림1. 용담작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	●			#	#		▨		△

△ 정식 ● 발아 # 네트 ▨ 수확

산성토양을 좋아하므로 pH 4.5~5.5가 적당하다. pH가 높으면 철이 결핍되어 생육이 나쁘고 꽃이 담색화된다.

**작형** 지리산에 자생하는 용담 작형은 그림1과 같다.

**육묘** 자생용담의 고갈로 묘의 가격이 주당 250~300원씩 거래되고 있어 처음 시작하는 농가는 부담이 크므로 실생이나 삼목, 분주 등으로 번식하여 재배하는 것이 좋다.

**실생번식** 종자는 미세하여 1ml의 종자수는 약 7,000립 정도이므로 파종하는데 신경을 써야한다. 파종시기는 2월에 하는 것이 발아율이 높다. 종자의 휴면타파를 위해서 지베레린 50ppm에 3일간 침지(물1ℓ에 GA 50mg)하여 음건한후 그림2와 같은 파종상에 배합토나 수태를 넣고 손끝을 이용하여 전면에 골고루 뿌린다. 광발아 종자이므로 복토는 하지 않는다. 건조방지를 위해 파종상 위

에 PE필름이나 유리로 피복하고 그위에 신문지로 차광한다. 발아 적온은 20℃ 전후로 25℃이상이면 발아율이 저하되며 발아기간은 15~20일 정도 소요된다. 본엽 2~3매가 되면 25공 정도의 연결포트에 가식하여 관리한다.

균일한 묘를 키우고 종자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림3과 같이 파종판을 만들어 파종하면 편리하다.

파종판은 5×5cm간격으로 직경 7~8mm의 구멍을 드릴로 뚫고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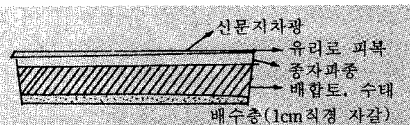


그림2. 용담파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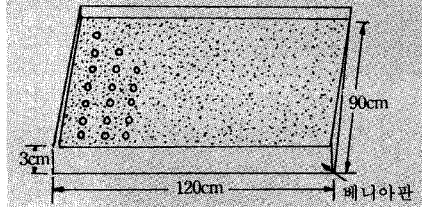


그림3. 파종판을 이용한 파종상

종상 위에 놓은 후 종자를 뿌리고 빗자루로 쓸어주면 5cm간격으로 묘가 균일하게 발아되어 속음작업이 필요없고 성장이 좋다.

**삼목** 삼목시기는 5월상중순으로 초장이 20cm 될때가 적기이다. 깨끗한 모래나 피트모스 1 : 피라이트 1의 비율의 용토에 정아삽을 하는데 삽수길이는 7~8cm가 적당하다. 삽수는 물에 30분정도 담근후 절구에 황토물 발근제를 묻혀서 음건시킨다. 삼목상에 2×4cm 간격으로 꽂고 50%차광망을 설치하여 4~5간격으로 관수하면 40일후 발근하게 된다.

황토물 발근제란 깨끗한 황토를 물에 희석, 앙금이 가라앉게 되면 윗부분 황토물 1ℓ에 발근제(옥시베른) 10g을 넣고 잘 희석하여 사용하면 되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면 삼목시간이 절약되고 발근율이 높아진다.

**분주** 가을이나 이른봄 새싹이 틀 무렵 3개이상 충실한 눈을 가진 것을 1포기 기준으로 쪼개서 벤레이트 500배액에 30분간 소독후 심는다.

**정식** 한번 정식하면 3~4년 수확하게 되므로 재배적지에 식재함은 물론 10a당 퇴비 3,000kg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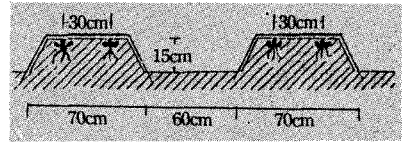


그림4. 용담정식요령

복비(18동율) 80kg을 넣고 잘 경운한 후 그림4와 같이 통로 60cm, 두둑 70cm 간격으로 만든후 30×15cm로 2조식하면 10a당 8,800주가 소요된다. 정식시는 뿌리를 곧게 펴서 심고 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식 적기는 11월중순에서 3월 상순으로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끝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고온에 직면하면 생육이 불량하기 때문이다.

정식후 잡초방제를 위하여 씨마진 600배액을 살포하고 짚으로 멀칭한다.

**네트설치** 쓰러짐을 막기 위하여 두둑에서 30cm에 1단(7월상순), 60cm에 2단(8월상순)을 설치한다. 쇠파이프(20~25φ)나 각목을 180cm간격으로 그림5와 같이 단단히 박고 폭 70cm, 눈간격 15×15cm의 네트망을 펼쳐서 고정시킨다. 네트가 늦어지면 가지가 휘어져 품질이 떨어지므로 생육상태를 관찰하면서 적기에 설치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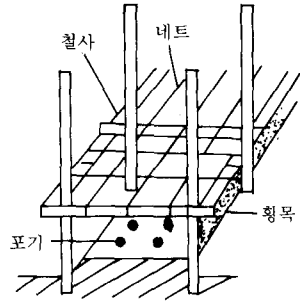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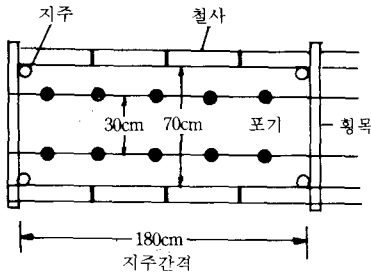


그림5. 네트 설치요령

**포기만들기** 1년차는 포기가 적지만 2년차 이후에는 포기가 많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되므로 그림 6과 같이 가지를 정리하여 정리된 가지는 삼목용으로 사용한다. 5월 하순경(초장30cm)에 굵은 줄기만 남기고 선단을 적심하고 그 이하는 뿌리가 자랄수 있도록 관리한다.

**병충해방제** 용담은 재배가 쉽고 병충해가 적으나 꽃썩음병, 잎마름병은 안트라콜 500배액이나

벤레이트 600배액을 2~3회 살포하고 뿌리가 썩는 백견병은 정식전 완숙퇴비를 사용하며 발생시는 벤레이트 500배액에 30분간 소독후 다시 심는다.

선충피해가 가끔씩 나타나는데 선충이 발생하면 잎이 노란색을 띠면서 생육이 부진해진다. 정식전 토양소독을 해야 되지만 토양소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발보다는 논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선충피해를 줄일 수 있다.

**수확 및 출하** 정식 1년차는 가끔적 수확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대묘를 정식하였을 때는 수확해도 무방하다. 수확적기는 그림7에서 처럼 선단의 꽃봉오리가 80% 이상 착색할 때인데 40~50cm 길이로 손으로 꺾어서 절화한다. 절화는 완전히 하지 말고 30% 정도 남겨서 뿌리생육을 도와 다음해의 수확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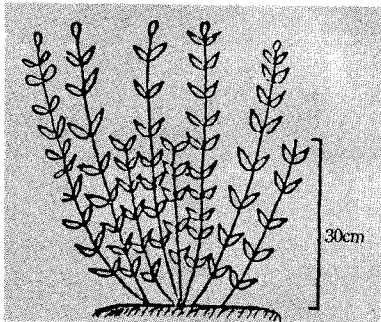


그림6. 포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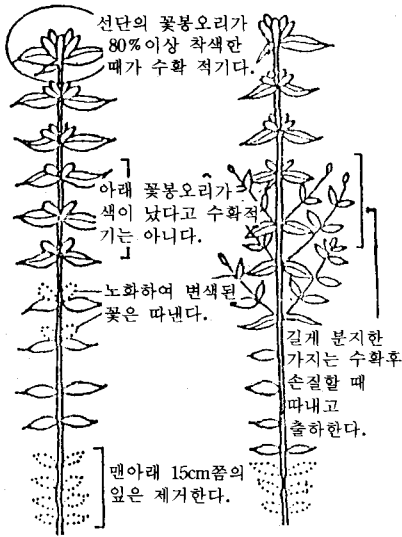


그림7. 용담꽃 수확 및 조제요령

을 많게 한다.

수확한 꽃은 물에 담그어 물을 흡수시킨후 그림7에서 처럼 병든 잎과 분지된 가지를 제거하여 10분을 1속으로 결속하여 상자에 담아 출한다.

**소득분석** 용담 꽃은 절화 뿐만 아니라 생약으로도 가치가 무척크다. 구례지방에서 시범재배를 해본 결과는 표2와 같으며 뿌리는 4

표2. 용담꽃 소득분석 (10a/천원)

년 차	재화량	조수입	경영비	소득
1년차	2,985속	2,120	870	1,250
2 "	3,000	3,300	800	2,500
3 "	4,000	4,800	1,200	3,600

년차에 950근으로 근당 7,000원에 6,650천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에 사는 농민 유명만씨는 '91년 10a당 4,200속을 출하, 3,840천원의 소득을 올려 자생화초의 소득화에 성공하였다.

### 분화재배방법

분화는 실용화되지 못했지만 개화기간이 30여일 이상으로 긴 편이므로 분화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화분 및 용토** 화분은 7,8호분을 사용하는데 가급적 흰 화분을 사용하는 것이 깨끗하게 보여서 좋다.

용토는 부엽3, 배양토5, 모래2의 비율로 배합하여 사용하는데 필히 pH5.5 정도로 산성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정식 및 적심** 정식은 11~3월 까지 가능하나 봄에 심는 것이 겨울철 관리가 번거롭지 않다.

화분당 3~5주를 심는데 가급적 얇게 심고 뿌리는 곧게 펴도록 해야한다. 흙은 화분의 8,9부 까지만 채워서 물집을 만들어 물주기에 좋도록 한다.

새순이 나오면 3~4마디에서 적심하고 촉아가 나오면 다시 적심하여 용담잎이 화분을 덮도록 관리한다.

**관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물주기인데 오전 10시경, 오후엔 3시경에 주는 것이 좋다. 수도물은 염소가 함유되어 뿌리활력을 저해하므로 큰 프라스틱통에 물을 받아 3~4시간 햇볕을 보게하여 사용한다(햇볕에 염소가 분해됨).

봄가을엔 2일에 1회씩, 한여름엔 1일 1~2회씩 물을 준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은 비올때 화분을 내어놓아 비를 맞으면 병감염을 초래하고 수분이 과잉되는등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비를 맞히지 말아야한다.

**기타관리** 용담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서늘한 장소에서 관리하고 한여름엔 햇볕을 직접 보지 않도록 반그늘진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절비되지 않도록 물주기때 깻묵물이나 제4종복비(하이포넥스등)를 적당량 희석하여 준다.

### 화단재배방법

화단에 심을 때는 절화 및 분화 재배에 준하여 관리하면 된다.

용담꽃은 재배가 비교적 쉽고 우리꽃으로 친근감이 있어 소비가 늘어나는 실정에 있으며 뿌리는 한약재로 다량 사용되고 있다. 이 름도 이상하고 가꾸기 힘든 외국꽃보다 얼마나 포근하고 정이 가며 신비스러운 꽃인가.

우리꽃인 용담꽃 재배를 확대하고 작형의 다양화, 재배기술 향상으로 우량꽃을 생산하여 UR극복은 물론 민족금지 및 자존심을 되찾도록 용담꽃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 “솔아비 農事에 씨앗각시 품값도 못한다”

옛날 농가에서 씨앗뿌릴때 아낙네가 아기를 기르는 세심한 마음으로 정성 들여 씨앗을 뿌려야 그 씨앗이 잘난다고 해서 아낙네가 없으면 품을 사서 하는 데 그 아낙네를 씨앗각시라 하였다. 그런데 솔아비 농사는 대체로 부실하기 때문에 씨앗각시 품값도 못건질 만큼 수확량이 적음을 경계하여 정밀영농에 힘써야 한다는 뜻.